

LEAGUE TABLE

인베스트조선 2025.3Q Korea Capital Market

2025년 10월 2일 목요일

대기업도 PEF도 '조기 철수'... 디레버리징의 시대, 혼돈의 국내 M&A 시장

올해 국내 M&A 시장은 '누가 더 공격적으로 확장하는가'가 아닌 '누가 먼저 내려놓는가'로 요약된다. 과거에는 SI(전략적 투자자)와 FI(재무적투자자)인 PEF(사모펀드)의 역할이 뚜렷했다. 대기업은 전략적 시너지를, PEF는 재무적 수익 극대화를 노렸다. 그러나 최근에는 '디레버리징(재무구조 개선·부채 축소)' 기조에선 두 축의 경계가 벌어지고 있다.

한때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투자했던 자산이 불과 5년 만에 매물로 나오고, PEF들은 밸류업 전략 실패로 장기 보유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 엑시트가 막히자 중고거래와 같은 세컨더리 거래로 몰리는 흐름도 뚜렷하다. 전략적 인수와 재무적 투자 간 경계가 흐려진 '조기 철수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다.

최근 DL케미칼은 이소프레라텍스(IRL) 제조사인 해외 자회사 카리플렉스 매각을 추진 중이다.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주관사 선정도 막바지 단계다. 2020년 약 6200억원을 들여 글로벌 화학사 크레이튼의 IRL 사업부를 인수해 설립했고, 2022년에는 5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싱가포르 설비를 증설했다.

그러나 석유화학 업황 부진 속에 재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수익이 나는 해외 자회사를 불과 몇 년 만에 매물로 내놨다. 스페셜티 신사업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구조조정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DL케미칼은 2022년 그룹 역대 최대 빅딜인 크레이튼(약 1조 9000억원) 인수를 단행하며 부채비율이 급등했다. 여천NCC의 대규모 손실까지 겹치자 올해 1분기 말 부채비율은 350%에 달했다.

삼일PwC, 3분기 M&A 자문 1위… 2위 UBS 포함 외국계 IB도 부상

삼일PwC, SK 리밸런싱서 활약…재무자문·회계실사 1위
대기업 해결사 UBS 필두로 골드만·JP모건 등 IB 부상
김앤장, 압도적 1위 질주…광장, SK그룹 네트워크 두각
금리 인하기 리파이낸싱 지속…3분기 순위변동 제한적

하반기 들어 대형 거래 계약이 이어지며 인수합병(M&A) 시장에 온기를 더하고 있다. 대기업의 사업재편·조달 경로가 다양해지는 가운데 뷰티·헬스케어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일감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미뤄진 빅딜이 순차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의 회수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연말까지 회계법인과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이 순위권에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M&A 재무자문

순위	주관사	금액 (억원)	건수	주요 거래	전년 순위
1	삼일PwC	115,724	40	리뉴어스·리뉴원 S, SK에어플러스 S	1
2	UBS	97,266	10	SK E&S 발전소 S, 플렉트그룹 S	3
3	삼정KPMG	82,293	26	LG화학 수처리필터 B, SBI저축은행 B	2
4	골드만삭스	63,435	3	DIG에어가스 S, 포테그라그룹 B	6
5	JP모건	57,106	5	DIG에어가스 S, 리뉴어스·리뉴원 B	7

▶▶ 삼일PwC, 3분기 M&A 자문 1위…2위 UBS 포함 외국계 IB도 부상

M&A법률자문

순위	주관사	금액 (억원)	건수	주요 거래	전년 순위
1	김앤장	201,556	53	DIG에어가스 S, LG화학 수처리필터 B	1
2	광장	236,192	43	DIG에어가스 B, 열티엄셀 JV지분 B	3
3	세종	129,933	42	SK E&S 발전소 S, 리뉴어스·리뉴원 S	2
4	울촌	87,050	34	롯데렌탈 S, 프리드라이프 B	4
5	태평양	114,177	31	롯데렌탈 B, 리뉴어스·리뉴원 B	5
6	화우	39,296	16	SI플렉스 S, 셀트리온홀딩스 CB S	7
7	LAB파트너스	23,485	8	SBI저축은행 S, 교보생명 B	10
8	지평	18,870	8	에어인천 B, 엠캐피탈 S	6
9	린	9,307	7	리젠바이오텍 B, 현대퓨처넷 S	13
10	베이커맥켄지 & KL파트너스	5,745	4	아워홈 S, 워터매니지먼트코리아 B	8
11	대륙아주				

M&A 시장 귀환 알린 외국계 IB… 고난도 크로스보더 거래서 존재감

3분기 DIG에어가스 등 대형 M&A 계약 속속
외국계 IB, 회계법인 주도 시장서 존재감 부상
국내 바이어 위축, 해외 바이어 물색 중요해져
“회계법인-IB 격차 여전”…당분간 역할론 기대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이 M&A 시장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다. 기업과 사모펀드(PEF)들이 국내에 발 묶이는 사이 IB들은 대형 회계법인에 밀려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회계법인이 처리하기 힘들거나 해외 고객이 참여하는 거래가 늘면서 IB들의 활용도가 다시 주목받는 모양새다.

오랜 기간 한국 M&A 시장의 주연은 외국계 IB였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확장 전략을 적극 펼치며 IB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 IB들은 매년 수조~십수조원의 자문 실적을 쌓았다. 연말 리그테이블 순위는 어느 IB가 그 해의 랜드마크 거래를 했느냐에 따라 갈렸다. 최고 호황기인 2021년엔 JP모건이 1위였다.

기업들은 2022년 금리 인상기 이후 확장 정책을 폐기했다. PEF들은 금리 부담과 각종 규제에 발이 묶였다. 이들이 국내에서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사이 회계법인들이 부상했다. ‘여차피 다 우리 고객들이니 IB에 밀릴 게 없다’며 M&A에 힘을 실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내리 회계법인이 1위를 차지했다.

3분기 들어선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5조원에 육박하는 DIG에어가스, SK이노베이션의 LNG 사업 유동화(3조원) 초대형 거래 외에 조단위~수천억원대 거래 계약이 줄을 이었다. 이들 거래에 참여한 IB들이 오랜만에 존재감을 드러냈다. UBS가 2위에 올랐고, 골드만삭스가 4위를 차지했다. 10

빅4 회계법인, 불황기 재무자문 부문 통폐합… ‘원스톱 서비스’ 경쟁 치열

3분기 DIG에어가스 등 대형 M&A 계약 속속
외국계 IB, 회계법인 주도 시장서 존재감 부상
국내 바이어 위축, 해외 바이어 물색 중요해져
“회계법인-IB 격차 여전”…당분간 역할론 기대

빅4 회계법인의 재무자문 부문이 불황기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개편과 전략 재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매출이 정체된 상황에서 지나치게 세분화된 조직은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조직을 통폐합해 융합 시너지를 노리는 동시에, 수익성 확보와 수수료 경쟁 탈피를 위한 돌파구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이는 인력 효율화와 비용 절감 효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3일 삼정은 재무자문부문을 기존 10본부 체제에서 6본부 체제로 축소 개편했다. 구조조정 전문 인력을 2본부로 통합하는 등 산재한 인력을 재배치해 전문성과 시너지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인력 감원은 없으며, 본부 간 이동을 통한 효율화에 초점을 맞췄다.

삼정 재무자문 매출은 2022년 회계연도 4650억원에서 2023년 4178억원으로 감소했다. 2024년 소폭 회복(4355억원)했지만, 여전히 정점 수준에 못 미친다. 전선을 넓히기보다는 핵심 역량에 집중해 수익성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원정준 부대표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젊은 본부장들이 자리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한 빅4 파트너는 “본부가 많으면 불황기에 내부 경쟁이 심해져 저가 수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통폐합은 불황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투자라는 말을 붙이지만

우리는 좋아하는 일에 열심일 때도
투자라는 말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깊이 좋아하는 것만큼
당신을 성장시키는 건 없으니까요

당신의 삶도
당신의 자산도 성장하는 투자

N2, 와 함께 시작해 보세요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당신의 투자 문화가 되다

N2,

NH투자증권



한국농협컨설팅 선정
2025년
소비자가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증권부문 4년 연속 1위

화우發 M&A 변호사 영입전… 더욱 중요해진 ‘허리 기수’ 진용

주요 법무법인 M&A 전문 변호사 현황

출처 각 사

법무법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율촌	세종	화우
리더	김진오 변호사 (사법연수원 26기)	문호준 대표변호사 (사법연수원 27기)	윤성조 기업법무그룹장 (사법연수원 27기)	박재현 기업법무·금융 그룹 대표 (사법연수원 30기)	장재영 기업자문·M&A그룹장 (사법연수원 29기)	안상현 자문그룹장 (사법연수원 30기)
주요 변호사	이영민(33) 최희준(34) 김완석(35) 홍민영(36) 정승환(37) 최병민·김성민(38) 김태오·박재홍·안희성(39)	김희웅(33) 구대훈·김경천·김종욱· 홍성찬·이형수(35) 김성민(36) 김태정(37) 이희웅·박경균(38)	김목홍(33) 이오령·조성민(34) 김방현·안현철(35) 오명석·강수구(36) 장호경(38) 정윤희(39)	김성진(32) 김건·황규상(33) 이수연·김홍(34) 유종권(36) 이호진·이응문·위춘재(38) 송호성·김가영(40)	강지원(34) 정혜성(35) 이수균	

신입보다 ‘경력 올인’... 불황기 대비하는 회계법인·로펌들

퇴사율 감소·자문수요 둔화
AI 확산이 촉발한 구조적 변화
정년·임기 연장 논의까지

신입 회계사 채용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채용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과거 한 해 1200명을 넘겼던 시절과 비교하면 4분의 1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대형 로펌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신입보다는 당장 현장 투입이 가능한 경력 인력 확보에 집중하는 기류가 뚜렷하다. 경기 둔화와 자문 수요 위축에 대비해 ‘안정’을 택한 결과다.

빅4 회계법인들은 올해 약 800명 수준의 신입회계사를 채용했다. 삼일이 270명으로 가장 많았고, 삼정 244명, 안진 130명, 한영 150명 순이다. 당초 700명 안팎이 거론됐으나, 미지정 회계사 발생 부담과 IT 전문인력 채용 수요가 반영돼 숫자가 다소 늘었다.

그러나 신입 채용 확대는 제한적이다. 핵심 배경은 퇴사율 감소다. 예컨대 삼일의 경우 과거 15% 수준이던 퇴사율이 최근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연봉 및 처우 개선, 회계사 수요가 높았던 스타트업의 부진 등이 맞물리면서 이탈 요인이 줄어든 영향이다. 이로 인해 빅4는 과거처럼 대규모 신입 충원 필요성이 약화됐다.

기업 실적 둔화로 자문 수요가 줄어든 점도 채용 축

삼성·한화·포스코 유상증자가 가른 주관 순위… NH證이 1위 수성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조원 유증이 순위권 결정
NH證·한국證이 1·2위…IPO는 KB證이 1위
사실상 ‘빅딜’ 마무리…올해 ECM 판도 변동 적을 듯

올해 3분기 주식자본시장(ECM) 순위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주관한 증권사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KB증권이 IPO 주관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포스코퓨처엠·삼성SDI 유상증자를 모두 맡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밀리며 전체 순위는 3위로 내려갔다.

NH투자증권은 2위인 한국투자증권과 약 5200억원 격차를 벌리며 전체 주관 1위를 차지했다. NH투자증권은 3분기 IPO 9건, 유상증자 10건, 신주인수권부사채(BW) 1건 등 총 20건을 주관했다.

NH투자증권의 1위 수성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가 결정적이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최종 조달금액은 2조9188억원으로, 2022년 삼성바이오로직스(3조2008억원)에 이어 국내 증시 사상 두 번째 규모다. 특히 3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단 두 곳이 단독으로 맡으면서, 올해 ECM 판도는 사실상 이 한 건으로 갈렸다는 평가다.

대기업 계열사 IPO가 ‘중복

올해 EB 70%가 자사주 기반... 소각 의무화 앞두고 '꼼수 논란'

3분기까지 EB 발행 3조원 돌파...자사주 기반이 70%
9월 한 달에만 7381억원...올해 발행액의 3분의 1
상법 개정 전 '선제 대응'...기업들 자사주 EB 발행 러시
'소각 기대감에 투자했는데'...태광·KCC에 시장 불신 확산

상장사들의 교환사채(EB) 발행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급증했다. 발행 EB의 70% 가까이가 자사주를 기반으로 한 물량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상법 개정 전에 자사주를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책 취지에 반하는 우회 수단'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9월 29일까지 발행된 EB는 총 3조1129억원, 80건에 달했다. 이 중 자사주를 기반으로 한 발행은 2조1610억원(69%)·55건이다. 올해 3분기까지 발행한 EB는 지난해 연간 발행 규모(2조248억원)는 이미 넘어섰고, 2023년 연간 발행액(1조7766억원)의 두 배를 초과한 수치다.

특히 지난 3월 HD한국조선해양이 자회사인 HD현대중공업 주식을 담보로 6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발행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발행 EB는 자사주를 기반으로 발행한 셈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올해 메자닌 시장은 전환

IMA·발행어음 인가 앞두고 ‘신경전’ 치닫는 증권사… 심기 불편해진 금융당국

인가 ‘막차’ 앞두고 증권사 긴장감 고조
타사 공개 비교까지…노골화하는 신경전
신용등급 하향·사고 이력…심사 변수 산적
당국, 정책 드라이브 속 ‘속도·조건’ 저울질

증권사들이 IMA(종합투자계좌)와 발행어음 인가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모험자본 공급을 금융정책의 핵심 기조로 내세운 만큼 업계 전반에선 최대한 많은 증권사들에 사업 인가를 내줄 것이란 관측이 현재까진 지배적이다.

하지만 최근 각사가 앞다퉈 인가가 나기 전부터 자신들의 강점을 홍보하고, 경쟁사를 공개적으로 견제하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당국 내부에서는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책 방향은 우호적이지만, 심사 과정이 ‘과열 경쟁’에 휘둘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부담이라는 평가다.

현재 정부의 방침은 분명하다. 종투사에게 저비용 조달 수단을 열어주고, 이를 벤처·중소기업·신산업 분야 등 모험자본으로 흘러보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발행어음과 IMA를 통해 조달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모험자본에 의무 공급하도록 규정했고, 이 비율은 향후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가를 받지 못하면 수년간 사업 확장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다. 실제로 내년부터는 심사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쉼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3분기 누적 사상 첫 회사채 70조 발행… NH증권 박차에도 견고한 KB증권 독주

KB證, 독보적 1위…NH와 약 4조원 격차
한투·신한·SK證 치열한 중위권 경쟁
9위 하나證, 전통 IB 강화 기조 성과
한화그룹, 회사채 발행량 2위로 부상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우호적인 채권 발행 환경에 회사채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3분기 누적 회사채 규모가 사상 첫 70조원을 돌파했다. 1분기 2위로 시작한 KB증권은 2분기에 선두를 재탈환한 데 이어 3분기에는 2위 NH투자증권과의 격차를 더 벌리며 독주하는 모습이다.

인베스트조선이 집계한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채권자본시장(DCM)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증권사가 주관을 맡은 무보증 공모 회사채(일괄신고 제외) 규모는 70조231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채권시장 호황에 힘입어 작년 같은 기간(61조9161억원)의 발행량을 가뿐히 뛰어넘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신디케이션본부 산하에 구조화금융부를 신설하는 등 자산유동화증권(ABS) 주관을 늘리기 위해 힘썼다. 그 결과 지난해 10위권 밖이었던 ABS 주관 순위를 2위로 끌어올리는 등 분전했지만 SK텔레콤, 한화, DB손해보험, 신한투자증권, iM금융지주 등의 대표 주관을 맡은 KB증권과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KB증권은 NH투자증권과의 격차를 2분기 약 2조 7000

▶▶ 3분기 누적 사상 첫 회사채 70조 발행…NH증권 박차에도 견고한 KB증권 독주

DCM 전체 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 (억원)	건수	주요 거래	전년 순위
1	KB증권	154,332	232	SK 315 에이블이목	1
2	NH투자증권	114,650	192	SK텔레콤 90 큐브반포 4	2
3	한국투자증권	75,931	163	SK 314 퍼스트파이브지 78	3
4	신한투자증권	70,812	116	LG에너지솔루션 4 퍼스트파이브지 80	4
5	SK증권	65,242	70	SK하이닉스 226 티월드 109	5
6	키움증권	37,490	96	롯데렌탈 61 신보2025 13	7
7	미래에셋증권	29,576	58	고려아연 11 유플러스파이브지 82	8
8	삼성증권	27,612	58	포스코 314 티월드 100	6
9	하나증권	21,308	37	고려아연 11 퍼스트파이브지 80	

불황 없는 3분기, DCM 호황에 채용 늘고 수수료 올리고

AA급 우량채에 자금 몰려 매매각은 3곳뿐
증권사·신평사 인력 확대…수수료 개편 본격화
건설사·NPL투자사도 발행 동참…KT는 일정 차질

3분기 수요예측에서 1조원 이상 자금 모은 기업

회사명	등급	만기	모집액	주문액	발행일
현대 지에프홀딩스	AA+	2	500	5,700	7/3(목)
		3	500	8,000	
한국 항공우주	AA-	3	1,800	12,800	7/4(금)
		5	700	7,700	
신한 투자증권	AA	2	1,000	5,000	7/14(월)
		3	2,000	8,900	
HD현대	A+	3	700	8,190	

메자닌, 영구채, PRS… 재무사정 빠듯한 기업들 다음 조달 선택지는?

PRS로 급한 불 끄는 기업들…비슷한 행보 이어질 전망
주력 부진, 신사업 불확실성 속 부채부담 급증 공통점
회계상 부채 아니어도 사실상 차입…계속 활용 어려워
다음 카드 마땅찮아…사업 정상화 없인 위기 반복 우려

투자은행(IB)들은 연초부터 기업들에 어떻게 유동성을 공급할지를 두고 머리를 싸매왔다. 주력 사업은 꺾여가는데 신사업에 자꾸만 자금을 대야 하는 곳들이 적지 않았던 탓이다. 자산 매각부터 모회사 수혈까지 여러 방안이 오르내린 끝에 결국 주가수익스왑(PRS)이 해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급한 불은 잡혀가지만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불안감이 여전하다. 위기가 거듭되면 다음엔 무엇으로 막아야 하는지 걱정도 일찌감치 오르내린다.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LG화학, 에코프로와의 PRS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에코프로는 자회사 에코프로비엠 주식으로 8000억원을, LG화학은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 주식으로 2조원 이상을 조달할 예정이다. 협상 과정에서 각사 요구가 다소 무리하단 반응들이 나왔지만 모두 재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막대한 유동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PRS는 주식과 같은 기초자산을 매각에 가깝게 넘

어차피 산은이 해결해줄거다?… 구조조정 절실함 부족한 석유화학사들

과거보다 산은이 먼저 뛰어들 명분 없어
“기업들 진정성 있는 자구안 내놓아야 할 것”
움직임은 있지만 아직은 계산기만 쳐다봐
‘먼저 내려놓겠다’ 생각 없으면 고통만 커져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에 처한 지금, 특히나 구조조정을 요구받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산업은행(이하 산은)의 역할론이 재조명 받고 있다. 몇 번의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과정에서 정부도, 기업도 사실상 구조조정에 손을 놓고 있었다. 다시 위기가 닥쳐오니 기업들은 산은을 쳐다보고 있는데 산은은 이미 명확히 입장을 밝혔다. 자율적인 구조조정 없이 정부나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으려는 과거의 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말이다.

정부는 나프타분해시설(NCC) 등 과잉 설비를 중심으로 감산 및 설비 통합을 추진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석유화학업계는 연간 생산량을 최대 370만톤을 줄여야 하고 이를 연말까지 정부에 계획으로 제출해야 한다. 구조조정에 동참하는 기업에만 금융·세제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미이행 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예고 했다.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두루뭉술하게 알아서 생산량을 줄이라고 하면 어떡하냐는 업계의 볼멘소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일단은 기업들끼리 자산 매각이나 구조조정을 위한 내부 논의를 지속하고는 있지만 정작 어느 기업이 언제 어떤 설비를 줄일지 실행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금융의 따뜻함을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걱정보다 희망이 먼저 피어나도록
고객을 위한 진심을 담은 금융의 길에
저 박보검도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의 꿈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도록
신한과 두 손 맞잡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전해요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원도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